

양계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

양계 산업의 손실 더 이상 볼 수 없다

축 산업에 있어 자조금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정부에서도 생산면 뿐만 아니라 수급조절까지도 직접개입보다는 자조금을 통해서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자조금은 각 축종별 산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자조금은 생산자가 각출하고 정부가 관심을 부여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조장해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한우산업이나 낙농산업 등과 달리 정책적으로 산업의 뒷받침이 적은 양계산업은 자조금 이나마 도입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각 축산물의 우수성이 서로 경쟁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우리 닭고기와 계란만이 뒤쳐진다면 결국은 양계산업의 위축과 손실로 귀결될 뿐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이제라도 따라 잡아서 내실 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다.

우리 양계산업은 그 나름의 특징이 있다. 다른 축종에 비해서 가장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또 전기압화도 많이 촉진되어 있는 상황으로 양계 인들의 힘만 모으면 바로 도입이 가능하다. 다만 산란계의 경우 지난해에 사료업계로부터의 거출이 막바지에 축산법 개정과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제 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아쉬움이 있었으나 정부의 의지만 표출된다면 금년도 중에는 법제화가 이루어져 당당히 자조금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양계산업을 둘러싼 환경

우리의 양계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도 자조금을 앞서서 도입한 타 축종의 드세에 밀리고 있으며, 또 대외적으로도 한·캐나다와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

| 특집 · 양계 자조금사업 활성화 방안 |

어 현수요 보다는 생산과잉에 노출되어 있는 양계산업은 산업체가 크게 요동되는 등 위기의식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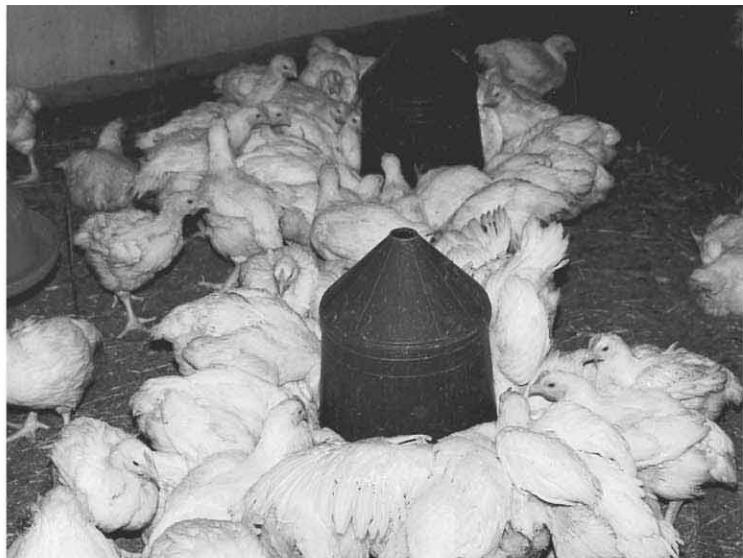
한편 양계농가의 경영규모도 이제는 그간 전업규모로 일컬어 왔던 3만수 사육규모에서 5만수 규모로의 확대가 요구되기도 하고 또 농기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농업은 그나마 축산업 이외에는 소득원이 크게 고갈되어 있어 전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결국 규모 확대 없이는 경영효율을 기할 수 없어 생산기반 확대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FTA와 DDA 협상의 결과는 아무래도 국내 양계산업의 위축과 아울러 양계농가의 퇴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그래도 그간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 자조금 사업의 일부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이제 자조금의 고유사업을 실시할 기반을 갖추어야 하는 절실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2. 외국의 자조활동 및 산업 보호장치

선진 외국에는 어떠한 자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나라마다 그 나름의 자조금 사업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국 양계산업의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1) 일본의 보호장치

일본은 무엇보다 정부에서 축산물의 자급목표



를 제시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계란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난가안정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양계농가를 중심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면 지방과 중앙정부에서 상당부분을 출연하여 난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갈 때 보전해주는 안전장치이다. 또한 사료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가 폭등시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사료안정기금도 정부와 업계, 생산자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해가고 있다.

2) 미국의 산업지원

미국은 닭고기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닭고기의 교역에 있어서도 세계 2위의 수출국이다. 따라서 일본과 달리 국내산업의 보호보다는 닭다리 등의 비선호 잉여부위의 수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활발한 편이다. 계란에 있어서는 계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자조금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가

공용으로 연간 24억개가 수출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생산량의 1/4 수준이다.

특히 수급조절과 관련하여 정부의 구매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생산이 집중되는 시기나 소비가 정체되는 시기에 양계산물을 구매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구매 축산물은 학교급식이나 노인, 극빈가정, 집없는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주고 있어 결국 가격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3. 자조금을 통한 양계산업이 나아갈 길

양계의 자조금을 통해 달성하여야 할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양계산물의 단순한 우수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닭고기와 계란이 영양적으로 우수하다는 것과 국내산의 선택이 왜 필요한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양계산물의 상대적인 우수성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소득수준이나 기호 등에 따라 먹을거리를 선택하지만 축산물의 상호 간에는 보완재나 대체재의 성격이 강하기에 결국 닭고기와 계란을 선뜻 선택해주느냐가 중요하다.

1) 블루오션(경쟁없는 거대한 신시장)의 개척

계란의 경우 현재의 가정소비나 식당에서의 소비는 거의 고정이 되어 있기에 300개 이상을 소비하는 일본이나 대만 등의 소비를 따라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나 수요를 확보하는 쪽으로의 역량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민 1인당 소비량은 계란이 연간 203개, 닭고기는 12마리반 이라는 물량에 만족할 수 없다. 계란의 경우 영양적 우수성 홍보도 필요하지만 1

분 안에 조리하여 음식화 할 수 있다는 조리의 간 편성을 최우선으로 홍보하는 즉 '빠른 것을 생각한다면 계란을 선택하라'는 미국 자조금협회의 사례를 채택해볼 수도 있겠다.

최근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한국의 드림팀으로 우뚝 선 '계란장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승엽 선수가 우람하고 강한 체격을 만들기 위해 하루에 계란흰자 20개씩 먹으며 운동을 한다는데 이런 것을 소비홍보에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한편 닭고기는 그 자체의 고유한 맛이 강하지 않아 어떠한 소스에도 쉽게 동화되어 맛을 내는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우리의 식문화가 소스보다는 국물이나 향의 문화이지만 젊은 세대들의 다양성과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국내의 양계산물의 생산능력은 단순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아주 높으며, 앞으로 수입확대의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생산시설을 쓰지 않고 방치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 신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해결책이다. 이것이 자조금 사업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2) 틈새시장 개척

우리의 닭고기 소비 형태는 대부분 주메뉴 위주의 치킨, 삼계탕, 닭볶음탕(도리탕), 백숙 등으로 가족이 어울린다든지 여럿이 모여 즐기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식습관은 한편으로는 바람직 하지만 양계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확대의 걸림돌이다. 인근 일본의 예를 보자. 닭고기 소비 형태를 보면 놀란 것은 선술집이나 분식점, 중소 음식점 등에서 닭고기가 다양한 형태로 소비된다는

| 특집 · 양계 자조금사업 활성화 방안 |

것이다. 주 메뉴보다는 보조메뉴로 많이 소비되다 보니 그 소비량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에 계란은 보조메뉴이나 계란덮밥과 같이 주메뉴도 있고 날계란을 밥에 비벼 먹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우리의 식습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가공부문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회문화의 발달에 따른 계란의 수요나 도시락문화의 발달에 따른 계란의 소비가 그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공부분의 소비확대를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음식과 관련된 산업의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계란을 깨는 노력이나 간편한 조리를 가능하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대형급식소의 계란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계란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수요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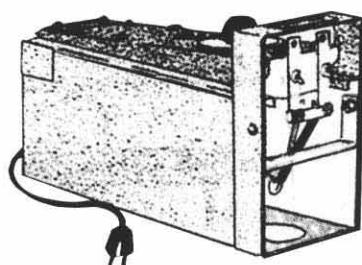
4. 맷은말

자조금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자조금의 도입이 양계산업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책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과 아쉬운 점을 충족시켜주는 보람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주요 먹을거리인 닭고기와 계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계농가와 관련 산업에 대한 보호장치 등의 보완대책도 펼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양계인들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 알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열정도 넘쳐 나고 있다. 이제 출범과 순연을 위한 지대한 관심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양계**

부리절단기 ♣ 닦풀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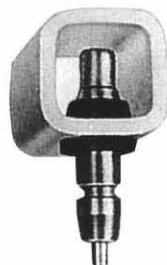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닦풀



수입품에 비해 가격기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 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7 - 743 - 6887